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2021년 성탄을 기다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선교편지를 보냅니다. 성탄을 목전에 두고 보내는 선교편지가 우리가 가운데 영적 교통과 위로가 되길 원하며, 또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령충만 가운데 이곳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1. 건강

지난 선교편지를 통해서 나눈 바와 같이 자연식(自然食)을 통한 치료를 했고 그에 따른 증세의 호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 돌아온 후 상태가 악화되고 통증이 재발하여 현재는 현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하고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약물치료를 시작한 후부터 부작용 없이 어느 정도 증세가 호전되었고, 2주 전에 드디어 이곳 현지 소화기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어, 그간의 경과를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병원과 치료 방법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지난 봄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선교관에서 우연히 신대원 시절 함께 공부한 동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그 분도 중남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잠시 담소를 나누려 그 분 숙소에 들어가니, 식탁 위에 병원 약 봉지가 수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약봉지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봐라! 경근아, 아프고 병들어도 모두 이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지내고 있단다!”

마음 한편으론 숙연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동료로서 위로와 동질감을 느꼈지요.

좀 아파서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걸음 갈 걸, 한 걸음 가면 되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강력합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2. 가정

자녀들이 크로아티아를 떠난 후 저희 집에는 아내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복적이며 다섯이 살던 집이 조용해졌고, 어쩌면 외롭고 쓸쓸한 시기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또 그 곳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과거와는 다른 생활 환경에 놓이면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는 사역이 있고, 당장은 건강을 위해 선택적으로 일을 줄여가고 있지만, 아내 문정미 선교사에게는 자녀 양육과 돌봄이라는 큰 부분이 떨어져나가고 나니, 나름 심적 공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둘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생활 또한 단조로워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에 아침 산책을 하곤 하는데, 우리 생활에도 새로운 도전과 계발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와 함께 산책



병원에서 대기하며

3. 한인교회 사임

자그레브 한인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가장 주된 요인이었고, 한편으로는 무너진 교회의 영적 상태와 굳은 모습을 아파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떠남이 교훈이 되고 영적 갱생과 회복의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의 침해가 없길 기도합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밤을 지새던 많은 날들, 또 생명 구원의 감격과 감동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펜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임하게 되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한인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크로아티아 땅에 에큐메니칼 협력의 다리를 세우고,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은혜와 혜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다시금 은총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은 자들에겐 평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지난 18일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사들이 협력하여 은혜가운데 종강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틈틈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던 사이버 한국외대 한국어학부 학위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한글학교 내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수업과 또 도전 받은 학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다비드(마가복음 필사자-선교편지1)는 지난 여름에 한국대사관 실무관으로 취업을 했고, 아담 가정은 코트라(Kotra)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전에 둘째 딸 에스더(별)가 태어났는데, 이번 취업이 그에겐 든든한 보장이요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새 교사로 발탁된 블라즈는 성경 공부반의 중심이 되고, 여전히 파울라와 키아라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공부합니다. 새롭게 개설한 초급 성경 읽기반에 유일한 참석자인 레오나도 열심히 배웁니다. 이들을 대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읽기2반(레오나, 파올라)



성경읽기1반(블라즈 파올라, 키아라)



학기 장학금 전달(헬레나)



다비드(대사관에 취업 후)



아담 투스칸 코트라 취업



두 달 사이에 훌쩍 자란 에스더

5. 크로아티아 군선교회(MCFC)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던 아드리아 인터랙션(Adria Interaction)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한국 군선교협의회(MSO)에서 최상복 교육실장님 내외분이 참석하였고, 저도 시간을 내어 하루 정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군선교회 드라젠이 두 번째 다큐멘터리('Tko je tvoj bližnji? - 누가 당신의 이웃입니까?' - 크로아티아 전쟁 때 참전한 외국인 병사들에 관한 다큐내용)를 제작했는데, 이 다큐가 큰 호응을 얻어 시사회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드라젠이 일약 유명 인사가 된 듯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보면서 이 곳에서 그를 만나고 인도한 선교사로서 위로가 있습니다. 드라젠이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MSO 최상복 교육실장 내외분과 드라젠



Adria Interaction 기간 중



다큐멘터리 시사회1(앞에 대통령 등 내빈)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6. 페트리냐 지역 성금 전달

올해 초 페트리냐를 돕기 위해 모금을 했지만, 건강 악화로 한국에 오는 바람에 그곳을 돌아보지 못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여름 자그레브로 돌아온 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했고 몸 상태를 기다리다, 11월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은 그 동안 다 철거되어 도시 군데 군데가 황량한 공터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페트리냐 침례교회의 디모데 목사를 만나 돕길 약속하고 돌아온 후, 크로아티아 침례교협의회(Croatia Baptist Union)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에 모금한 금액, 총 55,000쿠나(한화 9,843,900원)을 크로아티아 침례교단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이름으로 온정의 손길과 협력의 씨앗으로 전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섬김과 후원이 이곳 현지교회와 페트리냐에 위로가 될 줄 믿고 감사 드립니다. 내년에는 종종 방문하여 그 곳을 돌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페트리냐 모습1(시내중심)



현재 페트리냐 모습2(철거후 공터)



페트리냐 디모데 목사



침례교단(사무총장 젤코, 새 담임목사 필립)

7. 기도 제목

- 늘 영적으로 깨어 강건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는데,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한인 사역은 이제 물러나고, 그 동안의 선교사역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 건강 회복과 치료가 잘 이뤄지게 기도해 주시고, 일로 분주하지 않게 기도해주십시오.
- 자그레브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충만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 읽기반 제자들이 방학 동안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내년 초에 만 날 때까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 우리 부부가 새 환경에서 잘 적응과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평안하게 기도해주십시오.
- 현지에서 교제하는 모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 동역자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2021년 12월 23일 자그레브에서
김경근 문정미 선교사 올림